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9. 12. 29 ~ 2020. 1. 11 제217호



▶ 키르기스스탄 탈라스로 가는 길

제공: WMM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해의 아침이 밝아왔다. 시리도록 추웠던 지난날의 아픔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이 밝아오자 눈 녹듯 사라졌다. 2000년 전 그날도 새벽 미명이 다가올 때 고통과 눈물에 젖어있던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갔다. 차디찬 동굴 무덤 안에 아침이 밝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날, 세 마포에 싸인 예수는 이른 아침 떠오르는 해와 같이 일어났다. 그 어떤 시린 아픔도 그가 이해할 수 없

거나 받을 수 없는 것은 없다. 그가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고, 누구도 소망할 수 없는 어둠의 자리, 무덤에 누우셨기 때문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들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 주시고, 사망이 삼켜버린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셨다. 모든 영혼들이 새 창조를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새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GNPNEWS]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이사야 60:1~3)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가톨릭 국가 브라질, 복음주의 개신교인 증가 추세

개신교 증가 원인... 시장개방 후 반복된 경제 위기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시장개방 이후 반복된 경제 위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브라질 일간 폴라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코스타·안젤루 마르칸토니우·후디호샤 등 경제학자 3인은 공동연구에서 실업자 증가와 소득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각종 선거에 반영되면서 개신교 신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불만심리가 생겨난 배경에는 1990년대 시장개방의 충격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는 경제와 종교의 상관관계를 사실적으로 입증한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브라질에서 국립통계원(IBGE) 등의 공식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 비율을 보면 2000년대 이후에는 개신교 신자 비율이 급증세를 나타냈다. 2000년 가톨릭과 개신교는 75.2% 대 15.7%, 2010년 66.7% 대 22.9%를 기록했다. 통계원은

2019년에는 50% 대 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대선을 계기로 개신교 세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가톨릭 유권자들이 8000만 명이지만 39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개신교 유권자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브라질 언론의 분석을 기준으로 유권자의 종교별 비율은 가톨릭 55%, 개신교 27%, 기타 18%로 파악됐다. 브라질 선거 전문가들은 “주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포함해 우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개신교 유권자들을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GNPNEWS]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잠언 4:6) **기도** | 어려움과 위기를 맞았을 때 복음을 붙잡고 참 생명을 발견한 브라질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회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어 브라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1)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福音)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종류의 불행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김 욕심과 두려움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해답인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방향입니다. 믿는 사람인 신자(信者)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시 49:20). 이 사람들의 신앙은 끝없이 방향합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

문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교인은 변화될 가능성 또한 적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복음이 실제 되지 못한다면, 진리의 이론에는 동의해도 그 진리에 삶을 던져 경험되지 않는 복음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들은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일러스트=김경선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진정 복음이 실체가 되었습니까?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2017, 규장 김용의)>

*** 복음의소리 316전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십니까? 교회생활과 복음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주를
떠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진과 보이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복음의소리 도서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중국 교회, 예배처소 폐쇄 이후 거리에서 예배”



▶ 폐쇄된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국 성도들(출처: chinaaid.org 캡처)

최근 상하이에 있는 한 교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교회가 폐쇄되자 거리로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편,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M)에 따르면 2018년 1월에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 당국이 교회를 폐쇄하는 현상이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지만 중국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불을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는 가정교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VOM이 공개한 폐쇄된 예배당 앞에서 성도들이 찬송하는 영상에 대해 VOM 현숙 폴리 대표는 “폐쇄된 예배당 밖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이 당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현대적인 ‘대형교회’ 방식에 쫓려 있던 중국교회의 관심을 옛날 교회의 방식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전파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한 성경이나 양육 자료가 아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양육 자료를 이용해 가능한 시간 아무 때나 가능한 장소 아무 곳에서나 모였던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VOM과 동역하는 일부 중국 교회는 현재 교회 건물에서 주로 드렸던 예배를 교인들의 가정으로 옮기고 있다. 공원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모여 걸으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 목표는 예배당 건물에 집중되었던 교회 활동을 분산시키고, 교회가 담당하는 사역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목사나 훈련받은 사역자들에게서 교인들에게로 옮기는 것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도 않고, 목회자도 없이 평신도가 이끄는 새로운 교회에 건강한 예배와 양육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차이나에이드와 함께 ‘상자 속 주일학교(Sunday School in a Box)’를 성탄절 기간에 배포하기로 했다. [GNPNEWS]

미 고교, 기독 동아리 설립신청 거절... LGBT 동아리는 활동 중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는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면서도 LGBT(동성애자 등) 동아리는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뉴욕의 켄참고등학교는 신입생 다니엘라 바르카가 학교에 제출한 기독교 동아리 ‘OMG! Christian Club’의 창립 신청서에 대해 “기독교 동아리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일자유연구소(The First Liberty Institute)는 왓핑거 중앙 학군(Wappingers Central School District)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다니엘라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신청서를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한을 쓴 자유

연구소 상담가 게이샤 러셀은 “켄참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평등법(Equal Access Act of 1984)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1984년에 제정된 이 평등법은 미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으로, ‘기독교, 종교, 철학 등의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바르카의 아버지 윌리엄 바르카 씨도 “내 딸은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길 원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바르카의 동아리 지원을 거절한 학교 행정부 측은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가 다른 종교에 선입견을 가지



▶ 미국 뉴욕의 켄참고등학교 정문(출처: decisionmagazine.com 캡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학교에는 이미 프라이드 클럽이라 불리는 LGBT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러셀은 “학교 측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은 배타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GNPNEWS]

19기 청소년복음수련회 훈련생, 섬김이 모집

청소년복음화를 위한 연합(청복연)이 주관하는 19기 청소년복음수련회가 경기도 광주의 문광교회(최종덕 목사)에서 2020년 2월 10일(월)~14일(금)까지 4박 5일간 열린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2019년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2019년 12월 16일(월)~2020년 1월 15일(수)까지, 원서는 웹사이트(cafe.naver.com/youthgnr)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해외일 경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섬김이

는 청소년복음수련회, 복음캠프 수료자, 복음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훈련생 모집 기간과 동일하게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훈련생 회비는 4만 원. 문의 ☎ 010-3380-5781, 010-7331-7710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2.15 ~ 12.21)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고교 교과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사실 ‘부정’

초중학교에 이어 내년 3월 1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모든 한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유엔 결의를 부정하는 등 좌편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자라나는 다음세대에게 편향된 지식을 가르치면 평생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왜곡된 세계관 안에서 살게 됩니다. 거짓된 교육을 막아주시고 진실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브라질, 예수 동성애자로 묘사 넷플릭스 영화 폐지 청원 130만 명

브라질에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등장시킨 넷플릭스 영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을 없애달라는 청원에 약 130만 명이 서명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브라질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죄에 동참하지 않고 태도를 분명히 하는 이들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올해 LA 노숙자 사망 1000명 육박

올해 LA카운티에서 사망한 노숙자가 1000명에 육박해 노숙자 문제가 해결책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노숙자는 총 5620명이다.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숙자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들을 일으켜주소서. 노숙인들의 이웃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노숙인들이 영원한 하늘 분향을 얻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국내 이슬람 모스크 200곳... 주민 반발 의식해 이슬람 문양 없애

국내에 이슬람 사원이 최대 200곳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외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대부분 모스크 상징을 뺀 채 운영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5일 보도했다. 국내에 이슬람 신자는 한국인 3만 5000명, 외국인 10만 명이 있다.

이슬람국가에서는 기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정체를 숨기고 수많은 모스크를 세우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시옵소서. 광명의 천사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영혼들을 사냥하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시옵소서.

알바니아 지진 이후, 한국 선교사들 구호활동 활발

알바니아에서 지난 11월 28일, 규모 6.4의 강진으로 2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지진 이후 지금까지 한국 선교사들이 정부단체·푸드뱅크·어린이 사역 단체 등과 연합해 피해자 캠프촌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슬림이 강한 알바니아에서 지진으로 어려움 당한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알바니아 영혼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12월 30일 ~ 1월 11일

- 12월 30일 ~ 1월 4일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윤**)010-4916-1263, 12.30~1.1(16~18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김**)010-8432-3698, 12.30, 1.1~4(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2.30~31, 1.3~4(19~22시) ▶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1.2(10~15시) ▶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4011-6719, 1.3(10~14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3(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1.3(10시)~4(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송**)010-6779-4120, 그외 6교회 진행중.

- 1월 6일 ~ 1월 11일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7(0~24시) ▶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1.7, 10(10~12시) ▶ 경기 의정부 / 의정부열방교회(김**)010-6269-4821, 1.10(0~24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1.10(20~22시), 1.11(11~13시) ▶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그외 4교회 진행중.
-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기획 | 시리아 난민사태 (3)

“이웃으로 다가온 땅끝...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음을 기억하자”

오늘날 본격적인 난민문제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시리아 난민사태에 관한 현장 저널리스트의 기고문을 게재한다. 본지 객원 김시몬 기사는 시리아, 오스트리아 빈에서 거주하며 유럽으로 온 아랍 난민을 도왔으며, 현재 요르단에서 난민을 섬기며 그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편집자>

시리아 내전은 끝나고 있는가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IS)의 패퇴,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에 힘입은 아사드 정권의 국토 3분의 2 이상 통제권 탈환으로 지난 8년간의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어 가는 듯했다. 그러나 10월 9일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죽음의 위협을 피해 수많은 쿠르드족들이 피난길에 오르며 시리아는 또다시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한때 ISIS 세력이 시리아를 장악했을 때 미국은 시리아 반군이 ISIS를 막아주기를 원했지만, 반군은 아사드 정권 붕괴에만 집중된 탓에 역력이 없었다. 이에 미국은 쿠르드족 민병대(YPG)를 ISIS 퇴치를 위한 대안세력으로 세우고 군사지원과 공동 작전을 통해 ISIS 패퇴에 큰 공을 세우게 했다. 그 보상으로 쿠르드족은 독립국가 건설 내지는 민족적 자치권 부여를 꿈꿨다.

한편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 민병대를 자국 내에서 반정부 무장투쟁을 벌이는 쿠르드 노동자당(PKK)과 연계된 게릴라 부대로 간주하여, 자국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동안 시리아 주둔 미군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 주었는데 10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시리아 철군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터키는 지난 9일 시리아 북동부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쿠르드족의 요청으

로 시리아 정부군이 이 지역에 투입됨으로 터키군과의 전장 확대 우려가 고조되었다.

터키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 속에 다행히 지난 17일 미국 펜스 부통령의 중재하에 터키는 시리아 침공 8일 만에 5일간의 ‘조건부 휴전’에 미국과 합의했다.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터키는 안전지대를 관리하고 미국은 쿠르드 민병대를 120시간 안에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시키고, 이후에는 모든 군사작전이 완전히 종료될

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들의 체류로 물가는 폭등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노동 임금은 낮아짐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불편해한다. 여기에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세계 각지로 흩어진 난민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어, 시리아 국내 상황이 안정화되면 난민들의 대거 귀국이 예상된다.

그러나 2019년 7월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내전이 어느 정도 안정된 2016년 이후 시리아로 돌아온 난민은 약 17만 명, 즉 시리아를

이 같은 나라 없는 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도 만난 자의 따뜻한 이웃으로

난민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리아를 바라보는 세계의 관심과 지원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빛 아래서 볼 때, 난민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함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고귀한 일이다.

현재 대한한국은 난민신청자 1000명당 허가비율이 0.04%다. 세계 10위권이라는 국력에 비추어볼 때 세계 139위라는 난민 인정률은 극히 저조하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쉽게 허가해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논의는 정부에 맡기고, 교회에는 이미 들어온 난민을 지극히 작은 자로 알고 사랑과 긍휼로 다가가고 섬겨야 한다.

난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맞춤형 섬김

요르단, 터키,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의 체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먼저는 난민 자녀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열악한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노동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사역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여름이나 겨울 방학, 혹은 휴가를 이용해 중동의 난민 사역 현장에 와서 단 며칠 만이라도 이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중요한 섬김이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관심과 존중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비록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까지 자기를 찾아온 낯선 방문객의 따스한 그 눈길만으로 이 아이들은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구호에 의존해 온 요르단 등 중동에 있는 난민들의 삶은 매우 열악하며 적게 받더라도 구호에 기대어 살아온 탓에 가난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악순환을 깨고 그들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과 형편에 맞는 직업을 찾게 하는 도움도 필요하다.

폭력과 전쟁이라는 인간의 야만적 범죄를, 오히려 난민구원의 길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선하신 역사에 방관자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가까이 동참하는 자가 많아지길 소망한다. <끝>

[GNPNEWS]

김시몬은 본지 객원 기자

필자는 2015년 가을, 이종덕 포토저널리스트, 최서우 PD(CGN)와 함께 터키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마케도니아-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독일로 이어지는 3000km의 난민 행렬을 따라가며 취재했다.



▶ 2019년 10월 3일 요르단의 자브르(Jaber) 국경의 한산한 모습. 시리아로 무역하러 가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제공: 김시몬)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발표했다.

터키는 안전지대에 주택을 건설해 자국 내 300만 명의 시리아 난민 다수를 그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대부분이 아랍계인 시리아 난민이, 안전지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과 갈등을 겪게 되어 아랍과 쿠르드 간의 또 다른 인종 충돌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귀국을 못하는 난민들

요르단, 레바논, 터키에 있는 난민들의 생활은 유럽으로 밀입국해간 난민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형편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정부로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대략 1500달러의 현금을 지원 받는 데 반해 요르단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120~140달러의 물품 구입용 쿠폰을 받을 뿐이다.

유럽 난민의 경우,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지만, 요르단의 난민들은 다수가 캠프 외의 지역에서 집을 빌려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 임차료와 전기세 등 기본 세금을 감당하기에도 벅겁다.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지만, 2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의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취업하기란 쉽지 않다. 요르단 국민은, 백

탈출한 난민 562만 명 중 3%만이 귀국했을 뿐이다. 폐허가 된 사회 기반시설, 거의 빈사 상태의 경제 상황, 정부에 반대하는 정서를 가진 난민들에 대한 군 징집 이후의 보복 우려, 귀국 난민에 대한 무작위적인 체포, 권위주의 정권의 공포 분위기 등이 시리아 난민들의 귀국을 가로막고 있다.

시리아 남부지역과 맞닿은 요르단의 자브르(Jaber) 국경이 작년 10월에 재개방된 지 1년이 되었다. 현재 요르단에는 유엔난민기구에 등록된 67만 명과 미등록자를 합치면 100만 명을 웃도는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에 시리아로 돌아간 난민은 지난 1년간 2만 명 이하에 불과하다.

시리아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리자 이들을 대거 수용했던 터키·레바논·요르단 또한 몸살을 치르고 있다. 유럽은 2015~2016년 대규모 난민유입 사태를 겪으며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반(反)난민 정서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막기 위해 터키 등 3개국 지원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이들 3개국 내의 반난민 정서는 갈수록 팽창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국이 앞장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적대심을 표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압박하는 등, 난민들은

과거 6·25 남북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망자와 국내 난민이 발생했고 국가 기반 자체가 무너진 불행했던 우리의 역사를 난민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위로를 받는다. 국제사회의 참전과 도움 속에 오늘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은혜 받은 우리 한국과 교회들이 난민을 위해 마음을 나누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유엔과 정부가 규정하는 난민의 정의와는 별도로, 한국 교회가 난민에 대한 교회만의 정의를 갖게 되길 제안한다. 성경이 말하는 난민은 누구이며, 교회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말이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살던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해 주고 보호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난민에게도 자비롭고 선한 이웃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논란은 교회에도 이슈였다. 대부분이 무슬림인 중동 난민들을 받아주었을 때 한국도 급격히 이슬람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슬람 포비아)과 우려, 생면부지의 난민을 도울 재정이 있으면 노인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긴급히 구제해야 할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기획 | 창조 이야기 (26)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람과 원숭이 뼈를 끼워 맞춘 것

교과서의 '유인원'은 거짓말이다 (2)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프랑스 남서쪽 크로마뇽 동굴지구에서 발견된 크로마뇽인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진화론의 증거로 쓰인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사람이다. 절대 중간체가 아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1973년에 거짓으로 증명됐다. 그런데 왜 아직도 교과서에서 진화론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또는 아파렌시스는 '루시'라고 더 잘 알려져 있다. 1974년 도날드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루시를 발견했다. 그는 중간체를 찾기 위해 보조금을 받고 에티오피아로 갔다. 누군가 그에게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가서 중간체를 찾아오시오. 못 찾으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소." 보조금이 끝나기 2주 전, 그는 루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보조금이 그 발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

다. 루시는 3피트(약 0.9m) 크기의 명백한 침팬지의 한 종류였다. 두개골의 뼈는 완전 부스러져서, 두개골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아이들의 교과서를 위해 사람 반 원숭이 반으로 그것을 짜 맞추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루시의 무릎이라고 이름 붙인 무릎관절은 1.5마일(약 2.4km) 떨어지고 200피트(약 60.9m) 더 깊은 곳에서 발견됐다. 그럼에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루시의 무릎'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것을 루시의 무릎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 무릎관절을 루시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여기고 있다.

원숭이는 아래와 위의 다리뼈가 일직선을 이루고 있지만 사람의 다리는 무릎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굽는 모양을 한다. 엉덩이가 무릎보다 넓기 때문이다. 루시의 무릎 뼈는 옆으로 굽었다. 대퇴부가 굽어 있다. 그래서 도날드는 "그것이 루시가 인간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될 수 없다. 나무를 오르는 원숭이들은 다 대퇴부가 굽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나무 타는 원숭이였다. 그는 또 "뼈가 보통 원숭이보다 약간 더 크다."고 말한다. 이 말은 맞다. 그렇다고 그게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런 논리는 짐마차용 말 뼈가 보통 말뼈보다 약간 더 크다는 것이 그 말이 트럭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그들이 찾은 뼈조각은 튼튼한 침팬지였을 것이다. 아마도 홍수 전의 침팬지이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왜냐하면 이전에 말한 바와 같이 홍수 전에는 모두가 다 더 튼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 루이 동물원은 인간의 발을 가진 루시를 전시했다. 손이나 발의 뼈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 다른 모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은 굽은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 대학의 맨튼 교수는 "이 동상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을 멋있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해 동물원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다. "동물원은 그것을 수용할 계획이 없다. 새 증거가 나올 때마다 전시물을 계속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전체적인 전시와 그것이 창조하는 인상을 본다. 또한 우



▶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는 손, 발, 두개골 대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진화론자들은 사람 반 원숭이 반으로 뼈를 짜 맞추어 상상으로 루시를 만들었다. (출처: archive.archaeology.org 캡처)

리는 이것이 창조하는 인상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그 동물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그들에게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동물원 과학센터에 가는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믿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석화된 화산재 층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산재 속의 발자국을 특별한 근거도 없이 375만 년 전의 것으로 만들었다. 시카고대학의 러셀 터틀 교수는 이 발자국들을 신중하게 조사했다. 그는 신발을 전혀 신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발자국을 연구했다. 그들로 진흙 위를 뛰어보게 하고 걸어보게 하고 달려보게 하고 종종

걸음으로 걷게 하고 깡충깡충 뛰어 가게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발을 신어보지 않은 이 사람들의 발자국들이 아프리카의 레톨리에서 발견된 발자국들과 정확히 똑같다." 그렇지만 그는 "만일 레톨리의 발자국들이 그렇게 오래 되었다고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같은 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결론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몰랐더라면,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뻔 했다.'는 뜻이다. 이 결론의 바탕에는 '그 암석이 아주 오래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은 진화론이 상식과 과학 연구를 방해하는 하나의 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과학의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이지 과학의 일부가 아니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에티오피아 대학에서도 종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칠 전 한 밤 중에 갑자기 국지전을 방불케 하는 총성이 들렸다. 밤마다 그렇게 잦던 개들조차도 이날은 아주 잠잠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다음날 아침에 알아보니 술 취한 민병대 그룹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총질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에티오피아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진행형이다.

이 나라 소말리주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 암하리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땅도 오로미아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인구도 에티오피아 안에서 세 번째이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남부의 시다마 종족은 몇 주 전,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종족의 98%가 찬성했다. 아직 결과에 대한 소식은 없다. 거의 확정적으로 새로운 자치정부가 탄생할 것 같다. 시다마 종족은 이를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해왔다.

최근 한 대학 안에서 학생끼리 종족간의 갈등으로 살인 사건이



▶ 에티오피아 한 대학교의 모습.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출처: geeskaafrika.com 캡처)

발생했다. 에티오피아의 대학 안에는 여러 종족의 학생들이 섞여서 수업을 듣는다. 연방정부는 학생 자신이 원하는 대학으로만 갈 수 없게 했다. 종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행한 제도로 보인다. 교수도 나라에서 임명한다. 이런 제도가 이제는 문제가 되어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연방 경찰이 이 학교로 무장 진입하여 경계를 서고 있다. 아이들이 치고 박고 싸우는 현장에 무장한 경찰이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다. 언제까지 무력으로 말릴 수 있을지... 이제 하도 흔한 일이어서 주요 신문

들은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아비이 총리는 새로운 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티그라이 종족과 아파르 종족을 주축으로 하는 정당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근래에 총리의 측근인 국방장관도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 연방정부는 여러 정당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합정부다. 이것을 아비이 총리는 내년 총선을 위해 하나의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최대인구를 가진 종족에 속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래서 요즘 연방정부 의회는 현 나라의

중요한 의제들인 종족간의 평화와 안전, 자국 난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고 새로운 정당 창설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각자가 가진 힘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전력을 다 하는 느낌이다. 에티오피아를 위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분위기다. 종족의 문제가 걸리거나 자신의 이익에 직면하면,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누구를 믿든 상관없다.

교회도 자신들의 현안이 더 관심거리다. 열정적인 예배와 현실의 삶은 서로 딴 세상인 것 같다. 한번 현진인과 교체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 영어에 'Life'라는 단어는 삶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제가 아니라고 말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모든 일의 결과를 나 자신의 만족으로만 귀결시키라고 유혹하고 있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결

과의 정당성과는 상관없고,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고 없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한 성도는 아비이 총리에 대해서 불만을 떠뜨렸다.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를 만나면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시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막아서야 한다고, 교회가 완전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삶과 생명을 바꾸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소망이 있다고. [GNPNEWS]

에티오피아 = W.B.I.E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성격 차이로 어렵던 우리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됐어요”

믿음으로 행진하는 3대 김선엽 권사·차주애 집사·김예슬 자매



©복음기도신문

한 선교단체에서 진행되는 기도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할머니, 며느리, 손녀로 이뤄진 3대(代)가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 믿음 3대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과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기 힘들어 때도 있지만 결국 말씀 앞에 순복한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3대를 한 자리에서 만났다.

-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 사이에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주님 때문에 가족이 하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차주애 집사(이하 차): “선교관학교에서 아웃리치를 가게 됐는데, 그때 팀장님이 ‘주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한 팀으로 모아 놓고 주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했죠. 이러저러한 팀원을 다 품고 나아가는 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팀장이나 섬김이는 할 게 못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생으로 참여하는 것도 벅차고 그런데 그들은 더 늦게 자고 더 일찍 일어나며 섬기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살아갈수록 못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허물어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어요. 어느 순간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됐죠. 주님은 억지로 무엇을 시키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 되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의 허락하심이 최선? 궁금했다

- 주님이 허물어 주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차: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색했어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참고 인내하고 계획적이고 철저한 성격

이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할 때도 꼼꼼하고 빈틈없이 했던 사람이라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예민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복음 앞에서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내 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세요. 놀라운 변화고 은혜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보이는 상황을 답답해도 나의 행함이 앞서지 않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넘어지고 일어지며 이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니까요. 특히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더욱 깨닫게 됐어요. 다음세대를 섬기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의 삶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세요.”

-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탄탄해지는 시간을 지나신 것 같군요.

차: “최근 밖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100%로 드리며 나아가겠는데, 가정 안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제



▶ 김선엽 권사가 워룸(war room)으로 부르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모습(©복음기도신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는 각종 신앙 훈련받는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참여하고 싶은 훈련을 받지 않고 1년 동안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말씀 앞에서 씨름했어요. 삶의 영역에서 물질과 자녀와 어머니에 대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도 주어졌어요. 제가 일을 할 때는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많으니 어머니와 덜 부딪쳤는데 일도 훈련도 멈추면서 오롯이 가정에서 섬

기며 어머니뿐 아니라 내 아이와 지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밖에서는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지만 집에서는 하나 될 수 없는 나 때문에 이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십자가에 나의 옛 생명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 권사님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김선엽 권사(74, 이하 김): “제가 시집을 잘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6·25 때 잃고 한 선생님 집에서 자라다가 어느 부잣집 만며느리로 시집을 왔어요. 그때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큰 아들 낳을 때 죽을 뻔 했어요.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산파를 해주셨죠. 그래서 늘 아들 보고 얘기해요. ‘애, 그때 너랑 나랑은 죽을 생명이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믿음 없이 세례도 받고 아이들과 교회를 나가다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35살 때였어요. 제가 큰 실수를 했고, 그 계기로 주님을 영접했죠. 그때 주님은 저에게 ‘너를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믿음생활을 했어요. 지금처럼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집오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김: “7년 전에 남편이 병으로 세

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 혼자서는 못살겠더라고요. 식구가 많은 데서 복잡거리면서 살다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살림도 돕고 섬겨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 얘기했더니 그러자고 해서 같이 합치게 됐어요. 그래도 남편이 떠나고 모든 환경이 바뀌다보니 너무나 힘들더군요. 4년 동안 하나님께 저를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어요. 아이들도 다 결혼 시켰고, 부모님도 잘 모시다가 돌아가셨고, 할 일 다 했으니 하나님 제발 데려가 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어요. 함께 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티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가 선교관학교를 소개했어요. ‘어머니, 선교관학교에 같이 가세요.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2017년 3월에 훈련이 시작됐어요.”

- 연세도 있으신데 훈련 받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김: “사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신학교를 보내주시긴 했지만 글씨도 제대로 못써요. 신학교 숙제도 남편이 대신 해줬거든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숙제를 줌도와줄 줄 알았죠. 그런데 전혀 안 도와주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하세요’라고 하더군요.(웃음) 하지만 숙제를 한 번도 안 밀리고 하게 됐죠. 물론 엉터리로 한 것도 많아요. 마음이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재밌었어요. 내 영혼이 늙어 있다가 햇볕으로 짝 나간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죠. 기쁨이 아주 충만해졌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뒤로부터 쉬지 않고 그런 훈련학교를 계속 섬기고 있어요.”

-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군요.

김: “얼마 전에 제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노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성격이 몹시 급한 편이고 며느리는 저와 달라요. 저 때문에 아마 힘든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참고 7년을 같이 살고 있어요.”

김 권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절이 아파 바닥에 앉기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현재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몸이 아파도 복음의 증인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김 권사의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김: “저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터전을 옮기면서 교회가 떨어져,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선교관학교를 가니까 많은 증인들과 함께 말씀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하루 일과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행복해서 그 시간에는 안 빠져요.”

- 권사님께 이런 기쁨을 전해주시는 집사님에게도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차: “저는 7년 전 어머니를 모시는 그 해에 복음학교에 참석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시댁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성격을 알고, 어머니도 제 성격을 아시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주셨고, 또 남편이 장남이라 언젠가는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나 되기 어려운 성격이지만, 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나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이 소원을 주시며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같이 살자고 전화를 주셨을 때 그러자고 대답했죠.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될 줄은 몰랐지만요.(웃음)”

- 따님도 기도의 자리에 항상 함께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차: “예수이에게 처음에 청소년 신앙훈련을 권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이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고 현실인 것을 주님이 비춰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이 훈련학교에 가서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후 예수이와 함께 훈련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김예슬(14, 이하 슬): “청소년을 위한 선교학교, 기도학교를 네 번 참여했어요. 최근에 다녀온 인도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꿈 (6)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고, 되찾아야 할 부흥”

마지막 날에는 연합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세 나라, 이스라엘과 애굽과 앗수르가 연합하여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사 19:23-25). 이 세 나라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세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 둘째, 이 나라들은 원래 한 혈통에서 나왔다. 셋째, 이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

인종과 혈통에 상관없이, 정치적 배경을 무론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복음 안에서는 모두 하나가 된다. 복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임마누엘’의 연합을 이루고, 죄인과 죄인이 하나 되어 가정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된다

(엡 2:13-18).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독하게 ‘내’가 중심되어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스가라의 환상이 이루어진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슥 8:23)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고, 되찾아야 할 부흥이다. 지금의 교회는 더 이상의 신학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신학적 연구를 해 놓았다. 화려한 예배당과 조직, 교단, 무엇 하나 모자란 것이 없다. 그러나 교회는 맥을 잃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실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한 몸 된 공동운명체였다. 구경꾼이 따로 없었다. 성직자 따로 있고, 콘서트 구경하듯이 예배를 구경했던 교인 따로 있지 않았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 핍박도 같이 받았다. 자기들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누구 하나 부족하거나 가난하지 않았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교회는 이 영광과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절대 홀로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자기 혼자 하나님 노릇하려는 ‘자아’는 교회의 연합을 깨뜨



일러스트=노주나

리는 가장 무서운 저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연합을 가로막는 지독한 자아를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스가라 선지자의 환상이 실현되는 것은 요원(遙遠)하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秋收)의 때인 지금은 우리의 순종만이 남아 있다. (2017년 7월)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THE 4TH **HUFM ENGLISH GOOD NEWS CAMP**

The HUFM English Good News Camp is a camp
헤브론선교대학교 영어복음캠프는

where the complete and wholistic Good News of the cross is proclaimed in English.
완전하고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이 영어로 선포되는 캠프입니다

Do you want to experience the glory, power and the blessing of the Good News in Christ?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We invite you to the place of grace where the Good News of the cross becomes reality.
십자가 복음이 실제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Participant Application 훈련생 모집

- When: Feb. 17-20, 2020. 3 Nights & 4 Days 기간: 2020. 2. 17-20. 3박 4일
- Where: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Choongnam Seosan-Si, Unsan-Myun Wonpyung 3Gil 8)
장소: 헤브론선교대학교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 3길 8)
- Who: High School Seniors - Adults (English Speaking) 대상: 고 3학년-성인(영어권)
- Fee: There is no registration fee. Instead, there will be an offering. 참가비: 헌금으로 운영
- Application Period: The application must be sent by mail and postmarked by Jan. 23rd, 2020.
원서접수기간 : 2020년 1월 23일 소인까지 받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hufm.or.kr or www.facebook.com/hufm2017
*자세한 문의는 헤브론 선교대학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Staff Application 섬김이 모집

- 지원자격: 복음학교 수료자, 영어복음 캠프 또는 미주 다음세대 복음기도 캠프수료자 영어 못 하셔도 섬길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
- 지원기간: 1월 23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 섬김이 모임: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오후 2-5시 헤브론선교대학교

* 문의 (010) 6368-1978 hufmEGNC@gmail.com

Interview

<5면에 이어>

“이제 3대가 한 자리에서 기도해요”

아웃리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른 아웃리치 때는 다 잘 풀리고 뭔가 어려움이 없었는데, 인도에 갔을 때는 누가 여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방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또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비자도 무사히 받게 됐고 여권도 찾고 가방도 찾게 됐어요. 기도도 엄청 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 다시 차 집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머니와 성격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차: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제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어머니의 성격과 제 성격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신혼 초에 함께 살다 분가한 후 다시 함께 산다는 것은 그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매달렸죠. 게다가 그 때는 아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했을 때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나와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실이 마음을 더 가난하게 했어요. 그때 딸 아이 친구 학부모를 통해 복음학교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간 복음학교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GNPNEWS]

H.M.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순회선교담 서북지방 말씀기도모임에서 김예슬양이 기도 인도를 하고 있다. © 복음기도신문



“제가 주님의 은혜로 약을 끊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약을 끊었어요.” “글쎄요, 환자분은 지금 굉장한 조증 상태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기적적으로 약을 끊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되고요.”

하루에 스무알 가까이 먹던 우울증 약이었다. 6년 반만의 일이다. 십 년 이상을 기독교 극단의 리더로 있었던 나는 늘 작품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지 못해서 세상 연극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작품보다 난 내가 하는 하나님의 연극이 좋다고 단원들에게 매일 주입하듯 얘기했다. 하지만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의 욕망들은 세상의 것을 더 알아야 하나님의 것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짓으로 포장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연습이 진행될수록 이 모든 것들

이 얼마나 오물과 같이 더러운 일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혼이 고통스러운지를 알아갈 때쯤, 공연 전날 연출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리고 연기 지도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성추행.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그 길로 그곳을 뛰쳐나왔지만 다음 날부터 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병원 진단명은 조울증과 공황장애였다. 이렇게 시작된 병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매일 알 수 없는 공포와 통곡이 찾아왔고, 아무도 만날 수도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수시로 자살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과 두려움으로 긴 침대 생활이 이어지곤 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폐쇄 병동에 여러 번 입원했고, 툭 하면 찾아오는 공황 마비로 수시로 응급실로 실려 가곤 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난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 모든 것이 나의 교만한



일러스트=고은선

과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드리기보다 그냥 약에 의존하며 병에 기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약에 찌들어 있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조차 힘들어졌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건 병 때문이야, 어쩔 수 없잖아.'라며 그 곳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다 지인의 오랜 권유로 찾아간 집회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

고 나는 너무도 오랜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나의 모습과 그 옆에서 계신 주님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나의 기도는 바뀌기 시작했다. '주님, 병이 평생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평생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 알게 되었다. 완전한 안

식과 평안은 오로지 내 주,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리고 보너스로 이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의사는 아직도 믿지 못한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내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시게, 주님이 하셨음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이제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스스로 눈을 뜨고, 약에 취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과 육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나게 감사한 날이다. 오늘도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GNPNEWS] 신경혜 단장(극단 비유)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대북제재로 주민들 굶어도 북 정권은 자력갱생만 외쳐”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국제사회의 계속된 대북제재와 나쁜 작황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지경인데도 북한 당국은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없이 자력갱생만 강조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받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농민들이 굶고 있는데도 어떤 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까지도 먹는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북한정권이 생산한 쌀에 대해 징수를 지나치게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함경북도 무산광산을 비롯해 국영 기업소들은 거의 배급이 끊겼고, 일반 공장기업소와 지방 도시, 평양에 있는 일반 공장기업소 중에서도 자금과 자재 부족 등으로 가동을 멈춘 곳이 많아졌다.

무역이 잘 되지 않아 돈의 유통이 나빠져 큰 불경기에 빠졌다. 시장에서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고, 도시 주민은 장사가 잘 안되니 현금 수입이 많이 줄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주민들 굶어 죽어가는 지경

2018년, 북한은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어 유엔 기구에 100만 톤이 넘는 식량 부족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움직임으로 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등에 있는 몇 군데 농장에 취재협조자를 보내 상황을 조사한 결과, 북한 자체 조사는 흉작이었던 작년보다 올해

가 더 나빠졌다는 보고가 더 많았다.

그 원인으로는 영농자재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 가뭄과 약한 지력 등이 꼽혔다. 북한은 자금이 없어서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매하지 못해 농장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남자는 입대해 소수만 있고, 여자들이 운영하는 농장이 많았다. 실제로 삼지연, 원산, 갈마, 단천 수력발전소 건설 등 국가사업에 농장원들이 동원되는 바람에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으로 김매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농사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북한은 계속된 가뭄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땅이 산성화되어 지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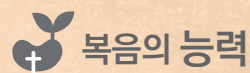
게다가 북한 당국은 올해 무직자, 직장 이탈자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이시마루 지로(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경제제재로 직장에 다녀도 월급이나 배급을 못 받는 직장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국영기업소를 떠나 장사에 나서거나 다른 직장으로 가기도 하는데, 북한 당국이 이런 상황을 우려해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계속된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 악화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체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자력갱생’ 구호를 외치지만,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지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시마루 대표는 “2020년 새로운 해를 맞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교섭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앞이 잘 안 보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계속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NPNEWS]



▶ 추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출처: 데일리 NK 캡처)



제3의 구역은 없다

관용과 단호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주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호한 책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해 가장 관용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자애와 관용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신다. 또 자애로 총만하신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으셨고, 심지어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나 이토록 사랑과 자애의 면류관을 쓰신 분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이 점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신다. 그분은 죄와 진리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제3의 구역이 없다.

[GNPNEWS] <내 자아를 버려라(2008), A.W.토저>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기적의 사과 (奇跡のリンゴ)

주변 환경과 연합하여 살아남은 사과나무... 연합만이 살 길이다



드라마 | 일본 | 129분 |
나카무라 요시히로 |
전체관람가 | 2013

영화 '기적의 사과'는 일본의 아오모리현(青森縣) 이와키마치의 작은 시골마을의 한 농부가 농약 없이 사과나무를 가꾸며 10년간의 실패 끝에 사과 꽃을 피우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농부는 농약을 사용해 수만 평의 과수원을 가꿨다. 하지만 그

의 사랑하는 아내가 농약으로 인해 병을 얻게 된다. 어느 날 우연히 접한 자연농법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큰 깨우침을 얻는다. 그는 농약과 비료 없이 자연의 생존력으로 열매를 맺고 땅 스스로의 친화력으로 비옥해지는 생명농법으로 야생의 사과를 수확하려는 꿈을 꾸며 실행해 나갔다. 하지만 많은 시련을 겪는다.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나무가 힘없이 말라 죽어 갔다. 수년간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땅의 일부를 매매하기도 했다. 과수원은 말라죽어 가는 나무가 무성해졌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산 속에서 비료도 농약도 없이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를 발견한다.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과수원으로 돌아가 산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여 나무를 가꿨다. 그는 나무들에게 웃으며 이야기를 했고, 잡초도 제거하지 않았다. 꽃과 풀들과 함께 자라는 사과나무가 되도

록 했다. 9년 뒤, 그의 과수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 아주 맛있고 풍성한 사과 열매로 넘쳐나게 되었다. 농부의 야생사과는 실온에서 몇 년을 방치해도 전혀 썩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했다.

영화를 보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은 농약을 뿌리는 것 같이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농약이 없어도 사과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농부는 생명을 갉아먹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단한다. 그의 많은 노력과 시도를 보고 사람들은 미치광이, 바보라며 무시하고 깔본다. 그럼에도 그는 그 책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좌절한 그에게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의 완전한 사형선고가 내려진다. 바로 그때 발견한 사과나무는 그의 인생을 뒤바꾼다. 농약 없이 사과나무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책의 내용을 믿음으로 달려온 그에게 눈앞에 있는 사과나무는

그 말이 진짜였다는 복음이었다. 그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 13:15)

사과나무가 농약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까닭은 사과나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내가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농약과 살충제를 뿌리며 없애기에 바빴던 잡초, 벌레들이 있었기에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사과나무는 주변 환경들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나는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주변 환경을 없애고 사과나무만 남게 했다. 사람을 가려 사귀며 내가 해롭다고 여기며 교제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를 갉아 먹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워

하는 지체들, 나의 모든 환경들은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잡초를 뽑으며, 농약을 뿌리며 내 힘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연합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

이 농부는 농약 없는 사과 열매를 보기까지 10년이 걸렸다. 포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책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내게도 지금 당장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며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GNPNEWS]

김진수 형제
(헤브론선교대학 1학년)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미움과 원망이 용서와 화해로...

저는 20대 중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 교회생활을 하며 중보기도자들은 어떤 특정한 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진리에 대한 나의 무지와 무식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기처럼 하루에 한 시간씩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24·365'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기도는 나와 가족들의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고 가끔 기도를 부탁받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해결, 소원성취를 갈망하던 죄인 중의 과수원 저에게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신 후 주님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 없이는 중보기도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기도훈련과정을 통해 중보기도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기도대상, 자세, 방법,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관심 대상, 또는 나를 좋아



일러스트=이수진

하는 사람, 내게 호의적인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해왔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관심 없고,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싫어하며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

나의 웅졸함과 간사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무지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매년 일독을 해도 나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저 종교인이었습니다.

가만 두어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죄로 인해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제하셨고, 존재적으로 죄 체질인 나를 위

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보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선택이 아닌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미움과 원망으로 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 우리 남편을 씬 없이 일하게 하여 결국 병을 얻게 한 원인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관심이라는 나의 악심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이 필요한 자였지만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떡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고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침내 복음을 위해 돕는자로 세워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남편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했던 그분을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보기도자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없어도 진리로 세상 권세자들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인 통치사명을 가진 영적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중보기도자로서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기에, 이제 주님이 불러주시는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상황과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열방을 위한 중보적 존재로 저를 드립니다. [GNPNEWS]

정문숙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11. 28 ~ 12. 18 (가나다 순)
개인 고은영 권순호 김다경 김부희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김일범 노은옥 박경희 박성규 안민자 안병윤 안수경 양애숙 유국주 윤미자 이삼연 이영옥 이준진 이진희 이현희 정영숙 정윤희 조형광 차상복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김포꿈꾸는교회 명암교회 모리야선교교회 문광교회 버거데이 복음기도신학연구소 빛의열매학교 새순교회 샘물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쉐 신한테크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광교회 축전교회 평안교회 하원교회 향기로움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10-6326-4641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